

전남교육의 눈물

기고

김영신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년 전남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 갈등 얘기다.

전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최근 202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교육청 70%, 전남도 30%로 결정해 통보했다. 작년에도 비슷한 갈등을 빚은 끝에 두 기관이 식품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단가를 400원 인상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보았는데, 올해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거리를 놓고 책임 있는 두 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이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 불편함이 없다.

전남의 소멸 위기는 심각하다.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이다. 전남의 출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에도 소멸 위기가 전국 최고인 것은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전남교육청이 주민 직선 4기 출범과 함께 '전남교육 대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다.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워 전남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전남

형 교육자치'와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미래교육'을 두 축으로 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과 협력의 교육생태계 구축 등 그간 추진한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있는 '전남학생교육수당'과 지난 5월 세계인의 박수를 받으며 개최했던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보여줬다.

긍정의 신호도 감지된다. 최근 3년간 고등학생 유·출입 현황을 분석해보니 유입 1708명, 유출 1016명으로 692명의 학생들이 전남으로 순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이 차츰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긍정의 지표임이 분명하다. 전남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변방에 위치해 있고, 여건 또한 열악하지만 미래교육에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전남교육이 이제 막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 희망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시점에 '무상급식'이 논란거리로 등장하니, 답답하고 또 답답할 따름이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만을 탓대로 내세우는 경제 논리로 인해 정부 예산과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급식비 분담 비율이 통보해온 안대로 결정될 경우 전남교육청은 내년에 260억원 넘는 예산을 급식 비용으로 더 충당해야 한다. 급식비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절대 아니어서 그만큼을 다른 항

목에서 빼야 해 본궤도에 오른 '전남교육 대전환'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전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건강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돕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당연히, 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보듬어야 할 공통의 책임이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왔다. 전남의 우수한 인재를 미래 사회의 동량으로 길러내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펴왔다. 최근에도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개최,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걸었다. 이번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 때, // 담쟁이 잎 하나나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르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이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는 지금까지 손에 손을 잡고 지역소멸, 교육소멸 위기라는 벽을 잘 넘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높은 벽이 있다. 붙잡은 손을 더 꼭 잡아야 하고, 서로를 이끌어서주어도 넘기 힘든 벽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社說

의미 큰 광주시 대중교통 무상·반값 정책

교통지원조례 개정안 의결

광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025년 1월부터 무상이나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과 반값이라는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공편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시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무상교통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추진키로 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광주시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골자로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

로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탄소 감축부터 경제 활성화까지 무상교통이 가져오는 유·무형의 가치도 크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증가하지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지난해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 버스·도시철도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부산시의 경우 어린이 승객이 이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얼마전 신안군도 버스공영제를 통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다는 성과를 내놨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무상과 반값 대중교통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고민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은 주민의 이동권 보호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침체되는 광주 대중교통의 실질적 변화는 지금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한 혁신적 발상에서 나온다.

전남 취약계층 월동지원 더 촘촘해야

선제적인 발굴 지원 시급해

전남도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혹한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 월동 준비조차 힘든 위기가구에게 겨울은 힘겨움 그 자체다. 이미 올여름 최악의 폭염을 경험했고, 기후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걱정이 앞선다. 경기악화로 흑한이 오기 전부터 전기·가스·수도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가구가 감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내년 1월 17일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수한 단전·단수·체납정보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 47종에 속하는 복지 사각지대 1만 명의 명단을 받아 관할 시·군과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해당 가구 전화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

도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6만9642명을 발굴, 복지상담을 통해 위험상황을 확인한 후 공적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필수적인 공적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후원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체계적으로 연계한 결과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시스템이 전 시·군에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인공지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후난민'으로 통하는 위기가구에게는 날씨조차 버겁다. 복지당국이 매년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고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많다. 결국 위기에 빠진 가구를 찾는 노력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넘어 인공지능까지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는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7일 새벽(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발효된 가운데 레바논 남부 티레에서 한 여성이 헤즈볼라 깃발을 펼치며 휴전을 축하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2010년 개봉한 영화 '황해'에서 배우 하정우가 김을 한 입에 넣어 먹는 이른바 '김 먹방' 장면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정우가 맛깔스럽게 먹던 '김'은 홍조식물의 한 종류인 보라털과에 속해있는 해조류를 총칭한다. 김에는 단백질, 비타민, 섬유소, 카로틴 등이 다량 함유돼 있고, 소화도 잘 돼 영양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고려 충렬왕때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신라시대부터 김을 먹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김을 양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 중기로 전해진다. 병자호란때 의병장을 지낸 김여익이 김 양식에 처음 성공해 그의 성을 따 김으로 명명했다는 말도 전해 내려온다. 김여익은 1640년 광양 태인도의 해변에 표류해온 참나무 가지에 김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양식하기 시작해 그 양식법을 널리 보급했다고 한다. 실제 광양에는 그가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김 시식지'가 있다.

김은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양식하는데, 보통 9월에 채묘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물김을 채취하고 이를

네모 모양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마른 김을 생산한다. 전남은 김 주산지로, 진도와 해남, 고흥, 완도, 신안 등의 생산량이 전국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전남 김이 수출 전성시대를 맞았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 김 수출액은 3억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남의 김 수출액은 2010년 1000만 달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불과했지만, 올해 3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수출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여기에 전남도가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지원과 혁신 품질관리 등 김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친 게 주효했다. '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은 종자·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육상양식, 품종 개발 등을 통해 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 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응원한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 | | | |
|--------------------------------|---|---------------|----------------------|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062)510-0421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062)519-0710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062)510-0351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062)510-0391 |
| www.jnilbo.com m.jnilbo.com | 정치부 | (062)510-0340 | |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